

#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유형별 지역사회활동 참여 특성분석

임광명\*

<sup>a</sup>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교수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ccording to Types of Sense of Community

— Case of Pyeongtaek in Gyeonggi Province —

Kwang-Myeong Lim<sup>a\*</sup>

<sup>a</sup>Professor, Pierson College, Pyeongtaek University

### Abstract

A rural community has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It preserves the traditionality relatively and its residents live long in the community. Therefore, a rural community forms the sense of community which differs from that of the city and the participation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community also may appear different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ccording to types of sense of community by using a segmentation approach. Through a self-administered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130 rural community residents in Pyeongtaek. As for the sense of community of rural community residents, two segments which are high level of sense of community and low level of sense of community were deduced. According to the types of sense of community, the difference of each segmentation was analyz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ies. The findings significantly will be used to make the way to build up the sense of community in rural.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rural community participation

## 1. 서론

공동체의식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집합의식, 공동 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Hillery(1955)는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공동연대(common tie),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문화·심리적 단위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표, 가치, 신념의 공유를 통한 우리라고 느끼고 연대함으로써 갖

게 되는 공통된 이해관계와 문화적 일체감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Hughey & Speer, 2002; Manzo & Perkins, 2006; McMilan & Chavis, 1986). 김정준(1998)도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연대감, 공동의 결속 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이는 지역사회를 단순한 주거공간의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주는 주거 장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강철희·홍현미라, 2002 재인용).

Germain(1991)은 공동체의식이 지역 내에서 외부환경과 지역

주요어: 공동체의식, 지역사회활동 참여

\* 교신저자(임광명) 전화: 031-659-8387 e-mail: lkm3719@ptu.ac.kr

의 다른 하위체계들 간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함양되고 공동체의 능력, 자발성, 관계성, 긍지 등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즉, 동질적인 지역공동체가 유사성과 친밀, 호혜성 등을 근거로 연대감이 강한 일체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해지므로 동질적이었던 지역이 이질적으로 쉽게 바뀌게 되고 지역성을 근거로 한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고 아주 다른 생활양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의 규범, 서비스, 가치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 이주한 유입된 사람들과 토박이인 사람들 간에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공유된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공동체적 관계의 쇠퇴나 해체를 경험하면서 지역사회 '삶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채혜원·홍형욱, 2002).

전통적 농촌지역은 노동협동의 두레와 관혼상제에 대한 상부상조로서의 계와 같은 공동체적 전통이 있어왔고(강대기, 2001), 대면적 인간관계가 가능했으며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동질성이 형성될 수 있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공유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박경우, 1994). 그러나 세계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의 현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게 되어 동질적이었던 지역이 빠르게 이질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농촌지역에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인과 농업인이 함께 거주하게 됨으로써 영농활동이 약화되고 농촌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조영재 등, 2010) 등 지역성을 근거로 한 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공동체 의식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증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삶의 질이 저하되고 미래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채혜원·홍형욱, 2002).

또한 공동체 의식은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도 있다(이인정 외, 1995).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도시중심으로 시행함에 따라 농촌은 빈곤과 교육·문화접촉 기회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투입으로 농가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문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농촌특성을 반영한 공공부조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김인, 2000)을 펼치는 등의 노력들이 있었으나 한계를 가진다(김주숙, 1992). 이로 인해 농촌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성을 나타내는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개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고(김성균, 2002)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만족도, 자존감, 참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는 첫째,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연구(김경준, 1998; 양덕순·강영순, 2008; 이라영, 2009; 이영하, 2005; 예상권, 2011; 정우진, 2008) 둘째,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경준, 1998, 성희자·전보경, 2006; 신영선, 2012; 이인혁, 2002; 이형하, 2005; 전정미·박태영, 2014) 셋째, 지역공동체 시설에 관한 연구(김대욱, 2005; 김민수, 2005; 노이경·황연숙, 2005; 박경욱, 2004; 신영선, 2012)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개발학과 도시·건축공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김경준, 1998) 최근에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단지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신영선, 2012). 또한 농촌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참여유형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참여유형도 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유지, 존속을 위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증진을 위한 참여유형에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전통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등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시와는 다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요인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배은석·박해궁, 2013). 이러한 농촌 지역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Chavis & Wandersman, 1990; 김경준, 1998; 신영선, 2012).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참여요인을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지역사회태도, 지역사회인지, 지역사회문제, 주민의식 등의 하나로 접근한 연구들과 달리 농촌지역의 주민의 참여를 위한 공동체 의식 유형별 참여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농촌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인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농촌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농촌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지리적 또는 특정집단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 정신적 공동체를 말한다(채혜원·홍형우, 2002). 강가영·장유미(2013)는 공동체를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면서 어느 특정 장소나 집단을 이르기에도 하고, 각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 의미, 정서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최재원(1993)은 공동체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지역사회의 필수조건으로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역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지리적 근접성, 공동유대감 중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명명될 수 있으며, 공동유대감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길 때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도 학자마다 모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식과 사회적 결속, 관련된 집단 의식을 말한다. 여기서의 집단 의식, 공동의식은 동일한 지역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신념, 감정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김경준, 1998). 이는 공동체가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공동체와 공동체의식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사회 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로 사용한다.

강용배(2004)는 고전적 지역사회 공동체의 정의를 '지리적으로 한정된 곳에서 살면서 구성원들 상호간에 거주하는 곳에 대한 사회적이고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즉 일정 영역 안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주민집단들의 단위를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식 개념 속에는 도시, 농촌과 같은 장소와 관련된 지리적, 지역적 공동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인간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관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Mcmlan & Chavis, 1986). 이러한 지역사회공동체의 전형적인 유형이 농촌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성희자·전보경, 2006). 공동체의식의 일반적인 특성인 동질

성, 공동의 목표, 상호의존성, 대면적 관계 등이 농촌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오승환, 2009; Glynn, 1981), 전통적인 농촌의 공동체는 다소 목표지향적 이어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한 특성이 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체의식은 가치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성희자·전보경, 2006).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Mcmlan과 Chavis (1986)는 공동체의식의 개념에 도시와 농촌과 같은 지역적, 지리적 특징(geographic)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relational)' 측면을 포함하여 4차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소로는 정서적 친밀감/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력(influence),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이다. 이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호작용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 유대감, 결속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이를 통해 조직도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김경준(1998)은 Mcmlan과 Chavis 연구를 바탕으로 연대감(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 충족감(지역사회 소속감에서 오는 충만한 느낌), 정서적 친밀감(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친밀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상호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일체감)이라고 정의내렸다. 공동체의식의 개념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며, 지역공동체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계 안에서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춘옥(2001)도 공동체는 '면대면 접촉이 가능한 정도'의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여 대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공동체의식을 현대의 공동체의식 해체현상과 관련지어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경준, 1998). 이들은 지속적인 산업화, 고립 그리고 상호 의존적 관계의 약화 등 많은 결핍 현상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이 쇠퇴되고 있다고 보고(Glynn, 1981), 공동체의식의 해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동성, 소속감, 동일화 감정에 대한 열망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동체 보다 폭넓게 보기도 한다(Brownel, 1950; Cowan, 1975; Minar & Greer, 1969). 공동체의식을 하나의 공동체 내의 구성원간의 집합의식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회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라 볼 때, 공동체 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집합의식임과 동

시에,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의식이  
라 할 수 있다(임광명, 2015).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공동의  
유대감을 가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정의하  
였으며, 공동체의식이란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  
감, 집합의식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의식으로 보고자 한다.

### 2.2.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활동 참여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도  
시지역의 공동주택단지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이들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신영선, 2012). 농촌지  
역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서 공동체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가 어렵고 특히 지역사회참여와 공동체의  
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양덕순·강영순(2008)은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들

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관(2012)의 연구도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살펴보  
는 것이었는데 연구결과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의 정도를 결정  
하는 요인임을 밝혀냈다. Aref(2011)는 지역개발활동 참여와 공  
동체의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공동체의식이  
관광개발과 같은 사회의 이슈에 참여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가 선행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다.

Holliday(2008)는 공동체의식과 참여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  
진시키는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Zhao et al.(2012)은 공동체의식  
의 구성요인인 소속감이 가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다른 구성원  
들과 지식을 나누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 의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조원섭(2011)은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많은 지역사회 애착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지역축제 참여에 미치

〈표 1〉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분석모형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은지용(2002)	청소년	봉사활동, 봉사활동 반성	공동체의식/시민성/참여의식/자율성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반성 경험을 많이 할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짐
박가나(2009)	중,고등학생	청소년참여활동 (참여수준/형태/과정/참여 양)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상호영향의식/육구의 통합과 종족/정서적 연계)	중·고등학생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참여기간이 길어지면 공동체의식이 높아짐
양덕순·강영순(2008)	제주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충족감/친밀감/연대감/소속감)	주민참여(주민참여의향/참여 정도/참여 관심도)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향이 높음
조원섭·최상수(2011)	천안시 지역주민	지역사회애착도 (정체성/의존성/사회적 친분)	지역축제참여(축제참여관심 도/정도/의도)	지역 정체성과 의존성이 지역축제와 같은 이슈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높임
박종관(2012)	천안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충족감/연대감/소속감/친밀감)	주민참여(주민참여의향/참여 정도)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
한은영·김미강(2013)	중학교 1학년	사회참여활동 (봉사활동/문화활동/과학활동/건강활동)	공동체의식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짐
최문형(2013)	서울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상호영향의식/필요의 통합과 충족/공유된 감정적 연계)	주민참여(정보제공형/주민주 도적/협력적 참여)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
배은석·박해공(2016)	도시/ 농촌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귀속성/애착성/교류성)	지역사회참여의향	공동체식과 지역사회 참여의향이 농촌지역이 높았고 참여의향을 결정짓는 요인도 차이를 보임
Hockman (2008)	대학생	성적/스포츠클럽참여/캠핑생활/ 전공만족도	공동체의식	각종 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침
Holliday (2008)	지역주민	독립변수 공동체의식/리더십	매개변수 사회적자원/만족도/ 임파워먼트/참여이익	참여몰입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
Zhao et al.(2012)	지역주민	독립변수 친근성/신뢰/지각된유사성	매개변수 소속감	지식획득의도/ 지식공유의도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의향이 강화됨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애착도는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인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지역애착도의 구성요소인 정체성과 의존성이 지역축제와 같은 지역 이슈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요인으로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김미숙, 2005; 김형용, 1999; 우룡, 1994; Sagy, Stern & Krakover, 1996; Glynn, 1981) 등이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지역사회참여의 하위요인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박가나(2009)의 연구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할수록,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한은영·김미강(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만족정도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자·이강형(2013)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 같은 사회참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지 않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 참여요인이 있을 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배은석·박해궁(2016)은 공동체의식이 지역 사회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은 농촌거주 지역주민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참여의향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자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흐름이 청소년, 지역사회자체를 개발단위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으로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와의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 까지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

를 설명한 뒤 설문지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기기입식 설문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134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2. 측정도구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Mcmilan과 Chavis(1986), Chipuer과 Pretty(1999)의 공동체의식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개발한 김경준(1998)의 공동체의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항목을 수정, 조정하였다. 교육학과와 지역사회개발 전문가 4인의 검토를 거쳐 평택지역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가 모호한 문항을 보완·수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7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 3.3. 분석방법

공동체 의식의 유형화 연구는 다변량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집단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며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Dolnicar, 2002). 공동체 의식의 차원을 도출하기 위하여 SPSS 20.0을 사용하여 측정된 변수들을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주성분 분석법)과 varimax rotation method(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슷한 공동체 의식 수준을 가진 집단을 만들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후에 각 공동체 의식수준 차원의 요인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인 수와 변수의 선택은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2006)이 제시한 요인고유치 1 이상, 요인부하량 0.5 이상, 원 변량의 60% 이상을 설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군집분석은 2단계 방식으로 Hair et al.(2006)이 제시한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계층적 군집분석을 한 이후에 비계층적 군집분석법 중의 하나인 K-mean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초기값은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군집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비계층적 계층적 군집분석의 군집과정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타 군집과 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2개 사례가 있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30개의 사례수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변수 간 선형성도 피어슨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에서 어느정도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 통계기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집분석의 적절성

을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참여 동기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80명(60.2%)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50대가 53명(40.2%), 60대가 46명(34.8%)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은 200-250만원 미만인 15명(11.8%), 250-300만원 미만이 24명(18.7%), 300만 원 이상이

63명(49.2%)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53명(39.6%), 대학교 이상이 65명(48.5%)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에 대한 설문에는 10년 이하가 40명(30.3%), 11-20년이 19명(14.4%), 21-30년이 22명(16.7%), 31-40년이 24명(18.1%), 41년 이상이 27명(20.5%)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질문에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명(19.8%),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9명(14.6%), ‘내가 자란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명(8.3%), ‘이사 온지 오래된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3명(40.5%), ‘최근에 이사 온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명(16.8%)으로 나타났다.

#### 4.2. 공동체의식 요인 분석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다’는 요인적재치가 다른 요인과 겹쳐 나타나서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를 실시하였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도 실시하였다.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는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값이 0.7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906으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15개의 공동체의식 속성으로 3개 요인이 만들어졌다. 3개 요인은 총 분산의 60.297%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부하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동체의식 속성의 Cronbach  $\alpha$  값은 0.922였으며,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값은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인 1은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힘을 모아 해결 한다’의 7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45.635%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30)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n=130)	남성	50 (39.8)	100만원 미만	4(3.1)	
	여성	80 (60.2)		100-150만원	11 (8.6)
연령 (n=130)	50대 미만	23 (18.9)	150-200만원	10 (7.8)	
	50대	53 (40.2)		200-250만원	15 (11.8)
	60대	46 (34.8)		250-300만원	24 (18.7)
	70대	8 (6.1)		300만 원 이상	63 (49.2)
학력 (n=130)	초등학교	4 (3.0)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	26 (19.8)	
	중학교	9 (6.7)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이다	19 (14.6)
	고등학교	53 (39.6)		내가 자란 곳이다	11 (8.3)
	대학교 이상	64 (48.5)		이사 온지 오래된 곳이다	52 (40.5)
현재 거주 지역의 거주기간 (n=130)	10년 이하	38 (30.3)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 (n=130)	최근에 이사 온 곳이다	22 (16.8)
	11-20년	19 (14.4)			
	21-30년	22 (16.7)			
	31-40년	24 (18.1)			
	41년 이상	27 (20.5)			

(표 3) 공동체의식 요인분석 결과

변 수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 Cronbach's $\alpha$	평균 <sup>a</sup>
<b>요인 1: 연대감</b>		4,201	45.635	.885	2.94
이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 할 수 있다	.837				3.32
지역사회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816				3.44
이 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혜택을 받고 있다	.810				3.36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701				3.58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668				2.95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572				3.42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은 힘을 모아 해결한다	.515				3.12
<b>요인 2: 소속감</b>		3,598	8,033	.865	3.44
내가 노력하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80				3.54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724				3.13
지역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705				3.37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5				3.32
나는 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693				3.56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664				3.54
<b>요인 3: 정서적 친밀감</b>		1,769	6,629	.866	3.89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829				3.84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	.815				3.93

설명분산의 누적값 = 60.297%, KMO = 0.9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 1265.336 (df = 78, p < 0.001)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관련되어 있어 '연대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내가 노력하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지역에서의 나의 역할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의 5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8.033%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지역의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어 '소속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지역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의 2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6.629%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정서적인 친밀감과 관련되어 있어 '정서적 친밀감'으로 명명하였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가 3.93으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3.8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3.58), '나는 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3.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의 평균값은 '정서적 친밀감'(3.89), '소속감'(3.44), '연대

감'(2.94) 순으로 나타났다.

### 4.3. 공동체의식 군집분석

공동체의식에 따라 지역사회주민들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각각의 요인 총합평균을 구한 뒤 Ward 방식의 제곱한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해를 결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석방법인데 이를 사용한 이유는 사례가 군집화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적 군집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집화 일정표에서 응집계수의 변동비율을 계산하고 군집의 동질성이 크게 증가하는 지점에서 중단규정(Stopping Rule)을 적용하여 2개의 군집해(28.03% 증가)부터 3개의 군집해(11.12% 증가)를 선정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의 단점은 Outlier들과 변수의 규모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해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는데 그 이유는 초기 군집중심에 의해 계속적으로 결합하는 분석과정 때문에 인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

을 실시하여 얻은 군집해로부터 각각의 최초 군집중심(Initial Seed) 값을 구하여 K-means를 실행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나온 군집평균값을 초기값(initial seed)으로 설정하고, 군집의 수를 2개 부터 3개로 하는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를 통해 요인별로 평균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두 개의 군집으로 정하였다.

세 개의 공동체성 인지 요인이 두 개의 군집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표 4)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단계	결합군집		계수	처음 나타나는 군집의 단계		다음 단계
	군집1	군집2		군집1	군집2	
125	2	34	706.200	124	122	127
126	1	4	756.476	121	119	129
127	2	5	820.400	125	123	128
128	2	3	923.121	127	56	129
129	1	2	1282.769	126	128	0
군집의 수		계수	계수의 변화량	계수의 변화율(%)		
5		706.200	50.276	6.64		
4		756.476	63.924	7.79		
3		820.400	102.721	11.12		
2		923.121	359.648	28.03		
1		1282.769	-	-		
			예측 소속집단		전체	
			군집1	군집2		
원래값	빈도(%)	군집1	78 (98.73)	1 (1.27)	79 (100.0)	
		군집2	3 (5.89)	48 (94.11)	51 (100.0)	
교차 유효값	빈도(%)	군집1	78 (98.73)	1 (1.27)	79 (100.0)	
		군집2	3 (5.89)	46 (94.11)	51 (100.0)	

주) 적중률(hit ratio)=95.0%, 교차유효성(cross-validation)=94.0%

(표 5) 공동체성에 대한 군집 및 판별분석 결과

구분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군집1: 높은 공동체형 (n=79, 58.95%)	3.71	3.74	4.09
군집2: 낮은 공동체형 (n=51, 33.22%)	2.69	2.90	2.66
mean	3.34	3.47	3.56
F 값	205.717**	229.625**	245.489**

주1) \*p(.005) \*\*p(.001)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주2) 적중률(hit ratio)=95.0%, 교차유효성(cross-validation)=94.0%

나타났다. 평균값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바탕으로 군집을 명명하였는데, 군집 1의 경우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높은 공동체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군집1에 비하여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낮은 공동체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분류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를 도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적중률(hit ratio)은 95.0%, 교차유효성(cross-validation)은 94.0%로 나타나 각각의 케이스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으며 군집 분석의 결과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 4.4. 공동체성 유형별 특성

지역사회주민들의 공동체성의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서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성별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낮은 공동체형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공동체형은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낮은 공동체형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비율이 골고루 나타난 반면, 낮은 공동체형은 거주기간 10년 이하의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주민이 인지하는 공동체성의 군집별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경제적 협동 활동(공동생산·판매, 공동구매 등), 친목활동(조기축구회, 계모임 등), 자치조직 활동(부녀회, 청년회 등), 봉사활동(불우이웃 돕기 등), 상호부조활동(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경제적 협동 활동(공동생산·판매, 공동구매 등)과 친목활동(조기축구회, 계모임 등)에서 높은 공동체형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낮은 공동체형은 평균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치조직 활동(부녀회, 청년회 등)에서는 높은 공동체형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공동체형은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봉사활동(불우이웃 돕기 등)에서는 높은 공동체형이 낮은 공동체형보다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공동체형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부조활동(결혼식, 장례식 등)은 높은 공동체형이 낮은 공동체형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보다도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공동체성 유형별 특성

구분		높은 공동체형 (n=79, 58.95%)	낮은 공동체형 (n=51, 33.22%)	Total	χ <sup>2</sup>
성별	남성	29(36.3%)	23(44.2%)	52(40.0%)	1.966**
	여성	50(62.5%)	28(53.8%)	78(60.0%)	
연령	50대 미만	15(18.8%)	9(17.3%)	24(18.60%)	5.901**
	50대	29(36.3%)	22(42.3%)	51(39.53%)	
	60대	30(37.5%)	16(30.8%)	46(35.65%)	
	70대	4(5.0%)	4(7.7%)	8(6.20%)	
학력	중학교 이하	8(10.1%)	4(7.7%)	12(9.37%)	7.561**
	고등 학교	35(43.8%)	17(32.7%)	52(40.62%)	
	대학교 이상	34(42.5%)	30(57.7%)	64(50.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8(22.5%)	21(40.4)	39(30.23%)	4.271**
	11- 20년	14(17.5%)	4(7.7%)	18(13.95%)	
	21- 30년	15(18.8%)	7(13.5%)	22(17.05%)	
	31- 40년	16(20.0%)	9(17.3%)	25(19.37%)	
	41년 이상	15(18.8%)	10(19.2%)	25(19.37%)	
한 달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	6(7.6%)	8(15.4%)	14(11.28%)	21.003
	150-200만원	5(6.3%)	4(7.7%)	9(7.25%)	
	200-250만원	10(12.5%)	5(9.6%)	15(12.09%)	
	250-300만원	12(15.0%)	12(23.1%)	24(19.35%)	
	300만 원 이상	40(50.0%)	22(42.3%)	62(50.0%)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	17(21.3%)	9(17.3%)	26(20.31%)	9.108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이다	13(16.3%)	6(11.5%)	19(14.84%)	
	내가 자란 곳이다	9(11.3%)	2(3.8%)	11(8.58%)	
	이사 온지 오래된 곳이다	31(38.8%)	19(36.5%)	50(39.06%)	
	최근에 이사 온 곳이다	7(8.8%)	15(28.8%)	22(17.18%)	

주1) \* p=0.05, \*\* p=0.01,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주2) 항목별 무응답 설문 제외하고 분석

〈표 7〉 공동체성 유형별 지역사회활동 참여정도

구분	높은 공동체형 (n=79, 58.95%)	낮은 공동체형 (n=51, 33.22%)	Total	t
경제적 협동 활동 (공동생산·판매, 공동구매 등)	3.18b	2.54a	2.94	7.854**
친목활동 (조기축구회, 계모임 등)	3.39b	2.56a	3.02	8.417**
자치조직 활동 (부녀회, 청년회 등)	3.17b	2.48a	2.88	7.347**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3.62b	2.92a	3.35	8.967**
상호부조활동 (결혼식, 장례식 등)	4.11b	3.52a	3.87	9.148**

주) p=0.05, \*\* p=0.01,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 주민(경기도 평택지역)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의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동 참여특성을 알아 보았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 선행연구(김경준, 1998; 임광명·박덕병, 2015; Brownel,1950; Glynn, 1981; Mcmilan & Chavis, 198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공동체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공동체형’, ‘낮은 공동체형’의 두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지역사회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서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높은 공동체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7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공동체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상의 학력에서 높은 공동체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비율이 골고루 나타난 반면, 낮은 공동체형은 거주기간 10년 이하의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공동체 의식 군집별 지역사회참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경제적 협동 활동(공동생산·판매, 공동구매 등), 친목활동(조기축구, 계모임 등), 자치조직 활동(부녀회, 청년회 등), 봉사활동(불우이웃돕기 등), 상호부조활동(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협동 활동과 친목활동에서 높은 공동체형이 높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낮은 공동체형은 평균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활동에서도 군집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치조직 활동에서는 높은 공동체형이 평균이상으로, 낮은 공동체형은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고 상호부조활동은 높은 공동체형이 낮은 공동체형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보다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는 선행연구(권정미·박태영, 2014; 김경준, 1998; 조영숙 외, 2004)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도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권정미·박태영, 2014; 신영선, 2012)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배은석·박해공(2016)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도시는 애착

성이고 농촌은 거주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귀속성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농촌지역의 공동체는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지역주민들 간 결속력 즉, 연대감이 깊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촌지역사회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박가나, 2009; 박종관, 2012; 2013; 배은석·박해금, 2016; 양덕순·강영순, 2008; 조원섭·최상수, 2011; 박종관, 2012; 최문형, 2013; Holliday, 2008; Zhao et al., 2012)과 비슷한 결과이다. 농촌지역 주민 간의 감정적 상호작용 등과 같은 유대감, 소속감 등이 공동체의식을 높이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농촌지역 주민이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으면 이웃 간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며, 이를 통해 각종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차원의 접근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역발전과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수용성과 성공을 위해 농촌주민들의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환경 및 여건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에 있어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촌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봉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연구(박가나, 2009; 성희자·이강형, 2013; 은지용, 2002; 한은영·김미강, 2013)와 비슷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보다도 부녀회나 청년회 등의 활동을 통한 자치조직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더욱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사활동과 자치조직 활동 모두에서 높은 공동체형이 낮은 공동체형 보다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공동체형에서는 봉사활동이 평균이상의 참여를 보인 반면 자치조직 활동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를 나타냈다. 단기간의 봉사활동 보다는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단체 활동을 통한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적인 단체 활동들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더욱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농촌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이러한 지역 내 지역단체들이 지역공동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평택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샘플에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농촌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농촌지역사회 생활만족도 및 농촌지역사회 친밀도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공동체 의식과 연관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강가영, &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2. 강철희, & 홍현미라. (2002).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43-77.
3.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4.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5. 김나영. (2001).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정치교육효과 지각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정치지식, 기능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미숙. (2005).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상미, & 남진열. (2011). 청소년의 포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4), 225-242.
8. 김신일. (1993). *민주적 공동체의식 형성의 과제*. 서울: 공보처.
9. 김재식. (2014).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 도덕과 교육의 전략 탐색.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45, 29-52.
10. 류승아. (2014).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28(3), 43-60.
11. 문재우, & 박재산. (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12.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13. 박광재. (2008).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의

- 방향. *윤리철학교육*, 10, 23-38.
14.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01-120.
  15. 박종관. (2012).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2(7), 183-193.
  16. 배은식, & 박해궁.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17. 서강식. (2011).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 도덕교과서 장애관련 내용분석 연구. *공주교대논총*, 47(1), 57-74.
  18. 서정아, & 조홍식. (2012).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 서주영. (2001).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4(2), 437-459.
  21. 성희자, & 이강형. (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22. 신영선. (2012). 농촌마을 주민 공동체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양덕순, & 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24. 양순미. (2014).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지도학회*, 21(4), 1061-1091.
  25. 유현희.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농촌지도학회*, 21(3), 1-23.
  26. 은지용. (2002). 청소년봉사활동 반성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7. 이영원. (2010).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지역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주,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2), 252-277.
  28. 임광명, & 박덕병. (2015).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유형별 학교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특성 분석. *한국농·산업교육학회*, 47(4), 53-72.
  29. 정수복. (1995). *공동체의식과 시민운동*. 서울: 공보처.
  30. 조영숙, 황대용, 배은식, & 고정숙. (2004).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113-125.
  31. 조원섭, & 최상수. (2011). 천안시민의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축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449-459.
  32. 최형입, & 문영경. (2013). 청소년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33. 최문형. (2014).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하병규.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한은영, &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야동복지학*, 43, 95-124.
  36. Angell, R. C. (1928). *A study of contemporary undergraduate life in the American University*. New York, NY: Appleton.
  37.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38. Bonus, s., Woods, Jr. B. H., Chan, K. C. (2005).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mong students on religious collegiate campuses in the christian evangelical traditi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4, 19-40.
  39. Carnoy, M. (1972). An empirical study of powerl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Journal*, 55, 353-354.
  40. Chipuer, H. M., & Pretty, G. M. H. (2000). A review of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Current uses,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futher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643-658.
  41. Feldman, K. A., & Newcomb, T. M. (1969).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Vol. 1. An Analysis of four decades of research*. San Francisco. LA: Jossey-Bass.
  42. Glynn, T.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0-818.
  43. Hughey, J., & Speer, P. W. (2002).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and networks. In A. T. Fisher, C. C. Sonn, & B. 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69-84). New York, NY: Kluwer Academic/Plenum.
  44. Long, D. A., & Perkins, D. D. (2008). Community social

- and place predictors of sense of community: A multilevel and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 563-581.
45. Lunsbury, J. W., & DeNeui, D. (1996). Collegi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381-394.
  46.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 211-227.
  47. Manzo, L., C., & Perkins, D. D. (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 335-350.
  48. Mcmi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49. Pacilli, C. B., & Zampatti, E. (2009). The MTSOCS: A multidimensional sense of community scale for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3), 305-326.
  50. Peterson, N. A., Speer P. W., & Hughey, J. (2006). Measuring sense of community: A method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debat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4), 453-469.
  51. Pretty, G. H. (1990). Relating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to social climate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60-65.
  52. Royal, M. A., & Rossi, R. J. (1996). Individual- Level correlates of sense of -community: Findings from workplace and schoo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95-416.
  53. Tartaglia, S. (2006). A preliminary study for a new model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1), 25-36.
  54. Townley, G., Kantz, J., Wandersman, A., Skiles, B., Schillaci, M. J., Timmerman, B. E., & Miusseau, T. A. (2013). Exploring the role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undergraduate transfer student experi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277-290.
  55. Sanchez, B., Colon, Y., & Esparza, P. (2005). The role of sense of belonging and gender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19-628.
  56. Wiseman, R. L., Gonzales, S. M., & Salyer, K. (2004).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tudents sense of community, degree of involvement, and educational benefit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tudies*, 13, 173-189.

---

Received 15 October 2017; Revised 23 November; Accepted 05 December 2017




---

Dr. Kwang-Myeong L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Pierson College, Pyeongtaek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es on sense of community, personality education and personality test  
 Address: (3825) Pyeongtaek University, 3825  
 Seodong-daero, Pyeongtaek-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lkm3719@ptu.ac.kr  
 phone) 82-31-659-8387